

데자뷰 현상

제1편



직업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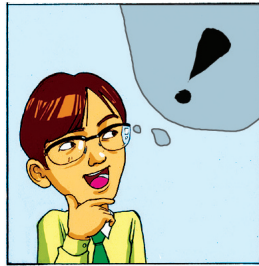
나이 : 35세

신장 : 182cm, 체중 : 65kg

외모 : 매우 스마트해 보이나,
어딘가 모르게 어설피름.

성격 : 무척 수줍음을 많이 타나
이상형의 여성을 보면
집념의 사나이로 변신

특기 : 주체할 수 없는 박학다식
슬로건 : 충각탈출



미모양은 어디서나 뵈다.

유행의 침단을 날아다니는 패션감각에 슈퍼모델 뺨치는 비너스 몸매, 거기다 종이라도 벨 것 같은 날카롭고 높은 콧대.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미모양은 캄캄한 무대 위에서 혼자 핀조명을 받는 뮤지컬의 주인공처럼 환하게 빛난다. 적어도 똑똑씨에게는 말이다.

미모양에게 한 눈에 반한 똑똑씨. 벌렁벌렁 뛰는 가슴을 푹푹 썩이며 석 달 열흘을 고민한 끝에 드디어, 미모양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섰다. 뭘가 끝내주게 근사한 제안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아뵤싸! 똑똑씨의 입에서 튀어나온 건.

“저... 저기... 미모양. 겨... 경복궁 가실래요?”

순간, 똑똑씨는 자신의 내뱉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가자는 것도 아니요, 근사한 전원 카페에 가자는 것도 아니요, 언감생심 경복궁이라니!!

그러나 똑똑씨가 자신의 뇌를 의심하며 다리를 후들거리고 있을 때, 뜻밖의 멘트가 날아왔다.

“어머, 어머. 제가 경복궁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와... 똑똑씨 생각보다 훨씬 감각있으시다양~”

이게 웬 하늘이 뒤집힐 찬스란 말인가. 허겁지겁 경복궁으로 차를 몬 똑똑씨.

그러나 경복궁에 도착하자마자 미모양의 행동이 이상야릇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늘씬한 다리로 성큼성큼 걸던 걸음새부터 느리고 거만하게 바뀌더니, 목은 곳곳하다 못해 뒤로 뒤집어지고, 어찌나 눈을 내리까는지 눈이 반쯤 감겨버려서 마치 80년대 유행했던 만화속 구영탄을 보는 듯 했다.

행동만 이상해 진 게 아니었다. 느끼하기 그지없는 목소리로 듣기 거북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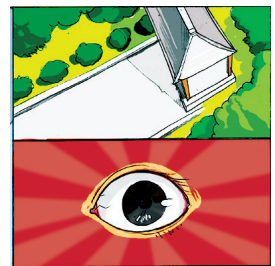
“아마... 여기선 어마마마와 시를 짓지 않았을까... 아, 저기 저기도 눈에 익숙한데, 저기선 뭘 했었을까?”
보다 못한 똑똑씨, 미모양의 사뭇 흐려진 의식을 전환 시키고자 한 마디 던진다.

“저, 저가요 미모양.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자 미모양, 드디어 신분의 비밀을 밝히고야 만다.

“이건 비밀인데요. 제가 전생에 진짜 공주였던 게 확실

해요. 경복궁에만 오면 뭐든지 눈에 익구요, 한 번도 가 본적 없는 곳에 어떤 물건이 있는



지도 다 알겠단니까요. 공주 처소가 어딘지까지 느낌으로 확 한 번에 알아냈다면 말 다한 거 아니에요? 전생에 공주였으면 현생에는 하다못해 국회의원 딸로라도 태어나야 되는 거 아냐. 아, 아바마마 어마마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지, 소녀를 데려가 주시지 않고...”

막힘없이 술술 터져 나오는 미모양의 황당무계 당혹 섬뜩한 멘트에, 똑똑씨의 그 주체할 수 없는 박학 다식함이 그만 튀어나와 버렸다.

“이봐요 미모양, 진짜 무식하다. 그게 아니라니깐요. 처음 보는 장소가 웬지 눈에 익고 언젠가 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데자뷰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젠 전생이 아니구요, 같은 풍경을 바라보더라도 사람의 양쪽 눈은 0.025초 이상 시각차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뇌는 먼저 도착한 정보를 우선 해석한 다음에 기억 속에 저장을 하구요, 똑같은 풍경이라도 그 다음에 도착한 정보는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 걸랑요. 그래서 같은 상황을 시차가 있는 상황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 와 본 적이 있는 낯익은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공주는 무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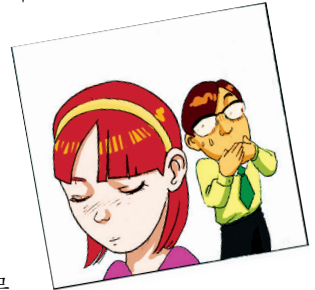
처음 보는 장소가 웬지 눈에 익고 언젠가 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데자뷰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한 번 시작하면 대통령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절대 중간에 자르지 못하는 똑똑씨의 장광설. 그러나 불그락 푸르락 끓어오르는 미모양의 얼굴을 보고 순간, 똑똑씨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다. 입술을 붙여버리고 싶었다. 똑똑씨는 자신의 장광설이 가져온 이 참혹한 현실을 어찌해야할지 몰라 다리까지 떨떨 떨었다.

급기야 미모양, 수치심을 참지 못해 달기똥같은 눈물을 똑똑 흘리기 시작한다. 오호 통제라, 똑똑씨는 첫눈에 반한 사랑스런 그녀 미모양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야 말았던 것이다.

“영영, 껴역껴역... 토옥똑씨. 정말이에요? 그냥 시각차예요?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믿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생에 공주였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어, 없는데...”



아무리 달래려 해도 미모양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다. 이미 옆질러진 물이었다. 그러나 집념의 사나이 똑똑씨,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아니... 과학자들 견해는 그렇다는 거구요. 아, 아직 완벽한 이론은 없다구 그러걸랑요. 그러니까 환생이라거나 언제 와 봤는데 기억이 안난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물로 범벅이 된 미모양의 얼굴이 구세주라도 만난 듯 ‘화악’ 겠다.

“정말? 정말요? 그럼 내가 진짜 전생에 공주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마... 난 몰라. 그럼 그렇지 내가 이 미모에 공주가 아니었다는 게 말이나 돼? 똑똑씨, 어쩔 그렇게 아는 게 많아요? 정말 멋지다.”



이런 걸 두고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것일 게다. 갑자기 기분이 UP 된 미모양, 똑똑씨를 얼싸안고 강충강충 뛰며 좋아한다. 그것만으로도 정신이 가물가물한 똑똑씨의 볼에 미모양, 이번엔 키스까지 꼭 해버리는 게 아닌가.

“당신은 조선의 공주에게 키스를 받은 첫 남자예요.” 라는 달콤하고 로맨틱하며 다리에 힘에 쪽 빠지는 사랑스런 멘트를 날리며 말이다.

황홀경 무아지경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똑똑씨.

공주가 아니면 어떤가! 단순 무식하면 어떤가! 지금 똑똑씨 눈에 미모양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 털어 그 어떤 공주보다도 아름답다.

(똑똑씨의 박학다식함은 다음호에도 계속됩니다.)